

채용비리 수사 2R... “언제 소환되나” 떨고있는 은행CEO

검찰, 은행권 수사 다시 속도
980개 2금융권도 조사키로

‘축제(연휴·올림픽)는 끝났다’.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 최고경영자(CEO)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칼을 빼들고 나서 금융권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KB국민·KEB하나·B NK부산·DGB대구·JB광주 등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고위급 인사 소환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의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이광구 전 행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에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기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관련 주요 일지〉

2017-10-17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 제기
11월	검찰,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 착수
	관련 임원 3인 보직해임 및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 발표
	은행권, 금융당국에 채용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보고
12월	금감원, 11개 은행 채용비리 현장검사
	이광구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
2018-01-26	금감원, 은행권 채용실태조사 5개 은행, 22건 비리 정황 발표
02월 01일	금감원, 5개 은행 검찰 고발
02월 06일	검찰, KB금융 지주회장 사무실 등 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
02월 08일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광주은행 본사 압수수색
02월 09일	검찰, 대구은행 제2본점 및 인사 담당자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02월 13일	검찰, 부산은행 본점 추가 압수수색
02월 20일	2금융권 채용비리 내부고발 유도
02월 27일	최홍식 원장, 정무위서 부정합격자 4명 중 2명 우선 퇴출 밝혀
03월 01일	BNK 박재경 사장,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소됐다. 최근엔 BNK금융 사장이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추세다. 이에 조만간 은행권 CEO들이 줄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먼저 지난달 28일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과 김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때 전 국회의원 자녀와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부당하게 채용해 부산은행의 정상적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금융도 어수선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KB국민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엔 인사담당자를 구속했다.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동시에 대구은행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행장은 지난해 7월 금감원 하반기 민원 처리 전문직원 채용에 자사 출신 직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 모 전 부원장보(55·구속기소)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대구은행 제2본점 채용담당 부서와 박 행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인사청탁 문제가 불거졌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인사비리에 연루된 CEO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하겠다”며 엄중 처벌 계획을 밝힌 만큼 검찰의 CEO 소환에 따른 금융권의 긴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당국이 2금융권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의 금융권 채용비리 파문이 예상된다.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980여개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더 촘촘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CEO들을 소환조사하고 2금융권까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7명 확정

신임 5명·재선임 2명 후보 추천
이달 정기주총서 최종 선임키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보 자격 검증 등을 통해 2018년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진, 박시환, 백태승, 양동훈, 허윤 총 5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윤성복, 박원구 등 2명은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윤종남, 송기진, 양원근, 김인배 이사는 퇴임하며, 차은영 이사는 임기가 2019년 주주총회까지로 남아 있다.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허윤 이사(임기 1년)를 제외한 4명의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중임할 수 있으며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의 임기는 1년이다.

이날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김병호 부회장(경영관리 부문장)과 함영주 행장(경영지원 부문장)이 지주사 사내이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기능의 독립성 약화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이들 두 사람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제외했다”며 “이에 따라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이 축소돼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홍진 후보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과장, 감사담당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이다. 박시환 후보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을 거쳐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백태승 후보는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은행을 거쳐 연세대 법무대학원 원장 겸 법과대학장, 한국인터넷

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 관련 법 제도와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이다. 양동훈 후보는 동국대 회계학 교수와 한국회계학회회장을 겸직 중이며 한국은행을 거쳐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이다. 마지막으로 허윤 후보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2015년부터 KEB하나은행 사외이사직을 수행 중이며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거친 금융·경제분야 전문가이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김정태 회장을 사추위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날 추천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김문호 기자 kmh@



한편 KEB하나은행과 한스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이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스코퍼레이션 모로코 현지 공장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딜 클로징 세레모니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박인수 경인영업본부장(사진 왼쪽부터), 배기주 IB사업단장, 박지환 기업영업그룹장, 한스코퍼레이션(주) 승현창 회장, 이석주 사장, 이승현 전무.

KEB하나銀, 모로코 신디케이트론 주선

공장 신축자금 3000만 유로 지원

KEB하나은행은 한스코퍼레이션 모로코 현지 공장 신축자금 총 1억2000만 유로(한화 약 1600억원)의 조달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단독주선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KEB하나은행이 모로코 현지법인 앞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주선에 성공한 7년 만기 중장기 대출이다.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6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주간사인 KEB하나은행도 3000만 유로를 지원한다. 이번 거래는 IB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속 추진해온 KEB하나은행의 노력과 국내 1위, 세계 5위의 자동차

휠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스코퍼레이션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KEB하나은행은 우량 중견기업인 한스코퍼레이션의 해외시설투자 자금조달 수요를 조기 파악하고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타 금융기관과 함께 모로코 정부 관계자 면담 및 모로코 법인 현지실사를 추진했다. KEB하나은행이 제안한 안정적 대출구조와 한스코퍼레이션의 기술력, 모로코 정부의 적극 협조를 바탕으로 현지실사에 참여한 모든 금융기관이 신디케이트론 대주단 참여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스코퍼레이션은 세계 3위 자동차 휠 생산업체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문호 기자

“암호화폐로 숙박업 비용 결제하세요”

빗썸-위드이노베이션, 업무제휴
다종 암호화폐 결제 지원 첫 사례



빗썸은 국내 최대 종합숙박업 ‘여기어때’를 서비스 중인 위드이노베이션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제휴에 따라 여기어때 앱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고객들은 빗썸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국내 숙박업계에서 특정 코인이 아닌 다종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다. 여기어때는 국내 대표적 숙박업으로 호텔 프랜차이즈를 포함 전국 5만여 곳의 등록 숙소를 보유하고 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월간 순 이용자와 200만 건이 넘는 사용자 숙박 리뷰를 자랑한다. 앞으로 여기어때에 등록된 호텔, 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뿐 아니라 캠핑, 글램핑을 비롯해 한옥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소 비용을 간편하게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코인맵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결제 가능 가맹점 수는 1만여 곳이 넘는다. 온라인 최대 여행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는 호텔 예약 결제 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매장인 빅카메라는 일본 전역 59개 점포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스위스는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는 수백 대의 비트코인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 최대 숙박업 여기어때와의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 활용처 확산의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국내에서도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수단인 암호화폐의 활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경기 서현동에 ‘우리어린이집 새솔집’ 개원

우리은행, 일·가정 양립 정착 도모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층에 ‘우리어린이집 새솔집’을 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새솔집은 서울시 상암동 행복집, 성수동 사랑집, 화현동 도담집에 이은 네 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약 327제곱미터 면적에

만 1세에서 3세 영유아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전문업체인 모아맘이 위탁 운영하며, 새솔집 개원으로 우리어린이집은 약 16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 우리은행은 새솔집이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화 기자